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낙인에 미치는 영향

김미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A Study on the Effect of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on Perceived Stigma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Kim Mi Ji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 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esteem on perceived stigma in high school student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40 high school students from Gyeonggi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during May 2013.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by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19.0 program.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tigma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elf-esteem among the high school students ($r=-.205$, $p=.015$).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ships with friends ($r=.291$, $p<.001$), health statement ($r=.400$, $p<.001$) and self-esteem among the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explained 3.5% of the variance in high school students' stigma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F=6.041$, $p=.015$). **Conclusion:**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a need to develop education to increase self-esteem as a strategy to decrease high school students' stigma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lso,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repeated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tigma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mong adults.

Key words : self-esteem, stigma, disabled persons

주요어 : 고등학생, 자아존중감, 장애인에 대한 낙인

교신저자 김미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35408) 대전광역시 서구 해천로 100 E-mail : mjkim@dst.ac.kr

투고일: 2015년 10월 12일 | 심사완료일: 2015년 11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12일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낙인(stigma)이란 사회적 개념으로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개념이다. 특히 개인적 독립성, 역할수행, 신체적 매력과 같은 조건에 높은 가치를 두는 문화권일 경우 부족과 결핍은 단체의 동질감에서 벗어난 배타적인 존재로 인식되며 이는 낙인의 개념을 형성시킨다(Douglas, M., 1978). 따라서 낙인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지닐 때 그 개인이나 집단에게 부여되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과 자아개념 형성과 같은 특성으로 나타난다(이인옥, 이은옥, 2006).

낙인은 한 개인이 살아가는 문화권에서 하나의 규범처럼 작용하게 되고 해당 문화권에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삶의 규범으로 습득되어 발현된다(이인옥, 2007). 우리나라의 의식구조는 유교사상의 영향 하에 예부터 체면중시와 외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지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윤태림, 1979). 이러한 문화적 규범은 장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시켜왔고 생산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이 부합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낙인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개념으로 해석되는 동시에 사회적 영향에 의해 충분히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개념으로도 해

석이 가능하다(정미연, 소희영, 2008).

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교육, 이동, 거주, 여가, 정보이용, 고용, 문화적 혜택 등 삶 속에서 여전히 차별과 편견, 불이익의 고통이 존재한다(김기홍, 2006). 또한 장애인에 대한 비호의적인 분위기는 사회통합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그 문제는 문화적 규범하에 다음 세대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통합의 방해요인을 줄이기 위한 접근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낙인 개념을 중심으로 관련 변수와 대상자별 낙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권명진, 김미진, 김영희, 2013; 김교연, 2014; 김정남, 2003; 신준섭, 이강훈, 김경수, 이용일, 2011; 서미경, 김정남, 2004; 이인옥, 2007; 이지수, 2011; 정미연, 소희영, 2008; 최말옥, 김행미, 2008).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낙인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대상자의 낙인변수가 자아존중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인옥, 2007)이다.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에게 갖는 전반적인 평가로서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결정짓는 중요한 개념으로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타인에 대한 인식,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백봉렬, 2011).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잘 수용하며 타인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잘 인식하고 주위 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

과 소속감을 느끼는 특성을 갖는다(조미성, 2014; 홍은숙, 2000).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장애인에 대해 수용적이며 부정적인 편견이나 부정적인 태도가 강하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으로 자아존중감 증진과 관련된 중재 프로그램이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이인옥(2007)은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낙인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장애인의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즉, 낙인을 줄이기 위해 자아존중감이 갖는 영향력을 이용하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비장애인의 연구대상은 자아정체성이 확립되고 자신의 자아개념을 완성해 나아가는 청소년으로 하였다. 이 시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로(정주원, 2014)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본격적으로 내면화되어 발달하는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은 미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교와 사회의 노력은 미래 사회통합의 특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낙인을 줄이는 중재 전략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아존중감, 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관계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고등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아존중감, 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관계를 분석하고 장애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표본수는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조건으로 G 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상자수 107명을 확인하였다. 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선정하였으며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

여에 동의한 1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배부 전에 대상자는 설문과정 중 언제라도 그만 둘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질 것과 연구대상자는 익명으로 처리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법으로 정하는 장애가 없는 고등학생
- 2)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 3) 설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3.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개념으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구성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이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설문지의 부정적 문항인 3, 5, 8, 9, 10에 대한 응답은 역으로 채점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소 10점

에서 최고 4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0$ 이었다.

2) 낙인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인옥(2007)이 개발한 지각된 낙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개발당시 측정도구는 저평가(10문항), 접촉기피(6문항), 차별(9문항)의 3개 요인으로 도구의 문항수는 총 25개 문항, 6점 Likert 척도이고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 이었다.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으로 구성되어 총 25-150점의 분포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4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경기도 B시에 위치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2013년 11월에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재직 중인 선생님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교장선생님의 동의를 구한 뒤 보건교사 선생님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비위해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인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

다.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과 설문도중 연구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위 내용이 포함된 연구동의서를 받은 후에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150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고 응답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표기로 판정된 10부를 제외하여 최종 140부의 설문지가 통계처리 되었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는 SPSS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 존중감, 낙인의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2)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였다.
-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아 존중감, 낙인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 4) 대상자의 특성과 자아 존중감, 낙인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5)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낙인에 미치는 영향은 simple regression analysis로 검증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59명(42.1%), 여자 81명(57.9%)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 35명(25%), 2학년 64명(45.7%), 3학년 41명(29.3%)로 조사되어 2학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69명(49.3%), 주거형태는 '가족과 거주'가 123명(87.9%)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서 ' 좋음'이 64명(45.7%), 친구관계의 정도에 대한 질문도 ' 좋음'이 78명(55.7%)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가족 유무는 '있음'이 20명(14.2%), '없음'이 120명(85.8%)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접촉 경험에 대한 유무는 '있음'이 63명(45%), '없음'이 77명(55%)로 조사되었다.

장애관련 봉사 경험유무에 대한 응답결과 '있음'이 74명(52.8%), '없음'이 66명(47.2%)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애인 관련 교육 수혜경험 유무에 대한 응답은 '있음'이 85명(60.8%), '없음'이 55명(39.2%)로 장애인관련 교육수혜자가 더 많았다. 가정 월수입은 300만원 미만인 가정이 60명(42.8%)로 가장 많았다<표 1>.

2.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장애인에 대한 낙인 정도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6.8점이고 최소값은 13점, 최대값은 39점으로 조사되었다. 낙인은 평균 76.1점이었으며 최소값은 25점, 최대값은 150점으로 나타났다.

낙인의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은 저평가 31.6점이며 최소값 10점, 최대값은 60점이며 접촉기피 18.1이며 최소값 6, 최대값 36점으로 나타났다. 차별에 대한 평균점수는 26.3이며 최소값은 9, 최대값은 54였다<표 2>.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140)

| 특성 | 구분 | N | % |
|-----------------|------------------|-----|------|
| 성별 | 남 | 59 | 42.1 |
| | 여 | 81 | 57.9 |
| 학년 | 1학년 | 35 | 25.0 |
| | 2학년 | 64 | 45.7 |
| | 3학년 | 41 | 29.3 |
| 종교 | 기독교 | 40 | 28.6 |
| | 천주교 | 16 | 11.4 |
| | 불교 | 10 | 7.1 |
| | 무교 | 69 | 49.3 |
| | 기타 | 5 | 3.6 |
| 건강상태 | 매우 좋음 | 26 | 18.6 |
| | 좋음 | 64 | 45.7 |
| | 보통 | 42 | 30.0 |
| | 나쁨 | 7 | 5.0 |
| | 매우 나쁨 | 1 | 0.7 |
| 주거형태 | 가족과 거주 | 123 | 87.9 |
| | 친적과 거주 | 3 | 2.1 |
| | 기숙사 | 14 | 10.0 |
| 친구관계 | 매우 좋음 | 33 | 23.6 |
| | 좋음 | 78 | 55.7 |
| | 보통 | 29 | 20.7 |
| | 나쁨 | 0 | 0 |
| | 매우 나쁨 | 0 | 0 |
| 장애인 가족 유무 | 있음 | 20 | 14.2 |
| | 없음 | 120 | 85.8 |
| 장애인 접촉경험 유무 | 있음 | 63 | 45.0 |
| | 없음 | 77 | 55.0 |
| 장애인 봉사 경험 유무 | 있음 | 74 | 52.8 |
| | 없음 | 66 | 47.2 |
| 장애인 관련 교육 수혜 경험 | 있음 | 85 | 60.8 |
| | 없음 | 55 | 39.2 |
| 가정 월수입 | 300만원미만 | 60 | 42.8 |
| | 3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 44 | 31.4 |
| | 500만원 이상 | 36 | 25.8 |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낙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낙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성별($t=-0.038, p=.970$), 학년($F=1.154, p=.318$), 장애인 가족유무($t=-1.362, p=.175$), 장애인 접촉

〈표 2〉 대상자의 자아 존중감, 장애인에 대한 낙인 정도 (N=140)

| 변수 | M±SD | 최소값 | 최대값 | |
|-------|------------|-----------|-----|----|
| 자아존중감 | 26.8±4.32 | 13 | 39 | |
| 낙인 | 76.1±21.60 | 25 | 150 | |
| 낙인 | 저평가 | 31.6±8.84 | 10 | 60 |
| | 접촉기피 | 18.1±5.58 | 6 | 36 |
| 하위요인 | 차별 | 26.3±7.99 | 9 | 54 |

경험 유무($t=0.184, p=.854$), 봉사경험 유무 ($t=0.718, p=.474$), 장애인 관련 교육 수혜 경험 유무($t=1.236, p=.219$)에서 차이가 없었다.

가정월수입($F=7.378, p=.001$)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 검정결과 월수입 500만원 이상인 집단이 300만원미만인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월수입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미만인 집단은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성별($t=-0.837, p=.404$), 학년 ($F=0.603, p=.548$), 장애인 가족유무($t=0.788, p=.432$), 장애인 접촉경험 유무($t=-0.217, p=.829$), 봉사경험 유무($t=0.686, p=.494$), 장애인 관련 교육수혜경험 유무($t=0.431, p=.667$), 가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낙인 (N=140)

| 특성 구분 | 자아존중감 | | | | 낙인 | | | |
|-------|-------------------------------|-----------|--------|---------|------------|------------|-------|------|
| | M±SD | t/F | p | Scheffe | M±SD | t/F | p | |
| 성별 | 남 | 26.8±4.90 | -0.038 | .970 | 77.9±22.28 | -0.837 | .404 | |
| | 여 | 26.8±3.86 | | | 74.8±21.15 | | | |
| 학년 | 1학년 | 27.7±4.62 | 1.154 | .318 | 72.7±22.17 | 0.603 | .548 | |
| | 2학년 | 26.5±4.12 | | | 77.7±20.18 | | | |
| | 3학년 | 26.4±4.33 | | | 76.5±23.42 | | | |
| 가족 유무 | 있음 | 25.6±2.54 | -1.362 | .175 | 79.6±22.41 | 0.788 | .432 | |
| | 없음 | 27.0±4.52 | | | 75.5±21.51 | | | |
| 접촉 경험 | 있음 | 26.8±3.98 | 0.184 | .854 | 75.6±19.63 | -0.217 | .829 | |
| | 없음 | 26.7±4.60 | | | 76.4±23.22 | | | |
| 봉사 유무 | 있음 | 27.0±4.12 | 0.718 | .474 | 77.2±23.09 | 0.686 | .494 | |
| | 없음 | 26.5±4.51 | | | 74.7±20.29 | | | |
| 교육 경험 | 있음 | 27.1±4.28 | 1.236 | .219 | 76.9±23.45 | 0.431 | .667 | |
| | 없음 | 26.2±4.41 | | | 75.3±18.9 | | | |
| 수입 | 300만원미만 ^a | 25.6±4.24 | 7.378 | .001 | c>a | 77.5±21.13 | 0.248 | .781 |
| | 3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b | 26.7±3.31 | | | 75.5±18.95 | | | |
| | 500만원 이상 ^c | 28.9±4.79 | | | 74.5±25.56 | | | |

정월수입($F=0.248, p=.781$)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인의 하위 영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영역인 저평가, 접촉기피, 차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낙인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낙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일반적 특성중에서 건강상태와 친구관계는 서로 정적 상관관계($r=.386, p<.001$)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친구관계($r=.291, p<.001$), 건강상태($r=.400, p<.001$)는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낙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일반적 특성은 낙인과 상관관계가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수인 자아존중감과 낙인의 상관관계는 부적 상관관계($r=-.205, p=.015$)가 있었다<표 5>.

5.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낙인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예측변수는 자아존중감으로 선정하고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인 하위요인 (N=140)

| 특성 | 구분 | 낙인하위요인 | | | | | | | | |
|------|------------------|------------|--------|------|-----------|--------|------|-----------|--------|------|
| | | 저평가 | | | 접촉기피 | | | 차별 | | |
| | | M±SD | t/F | p | M±SD | t/F | p | M±SD | t/F | p |
| 성별 | 남 | 31.9±9.08 | -0.349 | .728 | 18.4±5.68 | -0.472 | .638 | 27.5±8.41 | -1.556 | .122 |
| | 여 | 31.4±8.71 | | | 17.9±5.54 | | | 25.4±7.59 | | |
| 학년 | 1학년 | 30.4±9.22 | 0.570 | .567 | 17.6±5.85 | 0.227 | .797 | 24.6±7.68 | 1.022 | .363 |
| | 2학년 | 32.4±8.26 | | | 18.4±5.56 | | | 26.8±7.33 | | |
| | 3학년 | 31.4±9.46 | | | 18.2±5.50 | | | 26.9±9.15 | | |
| 가족유무 | 있음 | 33.2±9.89 | 0.850 | .397 | 18.4±5.82 | 0.191 | .849 | 28.0±7.31 | 1.058 | .265 |
| | 없음 | 31.3±8.67 | | | 18.1±5.57 | | | 26.0±8.09 | | |
| 접촉유무 | 있음 | 31.7±8.19 | 0.086 | .931 | 17.9±5.31 | -0.462 | .645 | 26.0±6.97 | -0.358 | .721 |
| | 없음 | 31.5±9.39 | | | 18.3±5.82 | | | 26.5±8.77 | | |
| 봉사경험 | 있음 | 32.1±9.30 | 0.652 | .516 | 18.5±5.83 | 0.757 | .450 | 26.6±8.69 | 0.607 | .545 |
| | 없음 | 31.1±8.48 | | | 17.7±5.39 | | | 25.8±7.30 | | |
| 교육경험 | 있음 | 31.9±9.69 | 0.255 | .799 | 18.5±5.96 | 0.780 | .437 | 26.5±8.49 | 0.339 | .735 |
| | 없음 | 31.5±7.51 | | | 17.7±5.02 | | | 26.0±7.33 | | |
| 월수입 | 300만원미만 | 31.9±8.41 | 0.054 | .947 | 18.5±5.48 | 0.292 | .747 | 27.1±7.78 | 0.554 | .576 |
| | 3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 31.5±7.90 | | | 18.1±4.93 | | | 25.8±6.84 | | |
| | 500만원 이상 | 31.3±10.68 | | | 17.6±6.54 | | | 25.5±9.58 | | |

〈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낙인의 상관관계 (N=140)

| 변수 | 건강상태 | 친구관계 | 자아존중감 | 낙인 |
|-------|------------------|------------------|------------------|------|
| | r(p) | r(p) | r(p) | r(p) |
| 건강상태 | 1 | | | |
| 친구관계 | .386** (.000) | 1 | | |
| 자아존중감 | .400** (.000) | .291** (.000) | 1 | |
| 낙인 | -.164 (.053) | -.121 (.154) | -.205* (.015) | 1 |

(* p<.05, ** p<.01)

낙인을 종속변수로 회귀 분석하였으며 낙인의 하위영역별 영향력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beta = -.205$, $t = -2.458$, $p = .015$)은 고등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3.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낙인의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차별에 대한 설명력이 4.2%로 가장 높았다<표 6>.

한 낙인의 관계를 파악하고 장애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보고된 선행 관련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를 통해 의미를 해석하고 연구 결과의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살펴보면 낙인 평균은 76.1이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권명진 등(2013)이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보고된 73.75보다는 높은 결과이다. 그러나 정미연과 소희영(2008)의 연구에서 지체장애인이 지각한 낙인은 88.9, 비장애인이 지각한 낙인은 76.3점으로 보고되어 비장애 고등학생이 지각한 낙인은 비장애 성인이 지각한 낙인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아존중감, 장애인에 대

〈표 6〉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N=140)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자아존중감 | | | | | |
|-------------|---------|--------|------|-------------------------|-------|------|
| | β | t | p | adjusted R ² | F | p |
| 낙인 | -.205 | -2.458 | .015 | .035 | 6.041 | .015 |
| 저평가 | -.192 | -2.303 | .023 | .030 | 5.303 | .023 |
| 접촉기피 | -.172 | -2.055 | .042 | .023 | 4.225 | .042 |
| 차별 | -.220 | -2.654 | .009 | .042 | 7.042 | .009 |

정도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비장애인의 지각된 낙인의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 비교에서 정미연과 소희영(2008)의 연구는 저평가 35.1, 접촉기피 17.4, 차별 23.8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하위영역 평균인 저평가 31.6, 접촉기피 18.1, 차별 26.3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고등학생의 낙인 하위영역에서 저평가는 낮고 접촉기피와 차별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낙인의 하위영역 중 차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낙인요인에서 차별에 대한 속성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것처럼 타인에게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며 차별 없이 대하는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인옥(2007)은 지체장애인이 지각한 낙인점수 96.3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비장애인 대상자인 고등학생이 장애인에 비해 낙인의 정도가 낮으며 낙인의 하위영역에 대한 비교결과 모든 영역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낙인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장애인이 한국의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반응과 경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낙인의 정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남성이 장애인에 대한 낙인이 더 높다고 보고한 정미연과 소희영(2008)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는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적인 활동 증가에 따라 한국인의 집단의식에 의한 체면중시 문화(윤태림, 1979)에 더 많이 노출되고 경험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생의 학년별 낙인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미연과 소희영(2008)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은 경우 낙인의 정도가 높다는 결과와 비교해볼 때 일치하지 않으나 연령의 범위가 고등학생의 경우 1년 단위로 하였기 때문에 20년 단위로 분류한선행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연령이 낙인의 지각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연령이라는 변수가 장애인에 대한 낙인에 어떤 과정을 통해 강화되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 가족유무에 따른 낙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중에 장애인 가족유무에 따른 지각된 낙인의 차이가 없었다는 정미연과 소희영(200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낙인 짝인자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 낙인을 공유한다고 언급한 Goffman(1963)의 주장과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이경희(2001)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정신 장애인을 둔 가족이 지각하는 낙인이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가족의 장애 종류에 따라 가족이 지각하는 낙인은 각각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비장애인의 낙인에 대한 연구는 추후 장애의 종류

에 따른 가족의 낙인 형성 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장애인 접촉, 교육 유무와 봉사 경험 유무에 따른 지각된 낙인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미연과 소희영(2008)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일치 되었다. 그러나 류원상(2007)과 양명희와 임은미(2004)의 연구에서 보고된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 접촉, 경험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조사할 당시 장애와 관련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접촉 경험의 상황적 요인, 봉사의 자발성에 따른 변수를 고려하여 비교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봉사 유무, 교육 유무, 접촉 유무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고등학생의 경제수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로 경제상태가 낮은 경우 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정도가 높은 것(이인옥, 2007; 정미연, 소희영, 2008; 정선미, 2005)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가 아직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적 구성원이 아닌 상태로 경제적 측면의 변수에 의한 영향권에 속하지 않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나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26.8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통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성선진과 이재신(2000)

의 연구에서 보고한 27점과 유사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대한 분석 결과 성별, 학년, 장애인 가족유무, 장애인 접촉경험 유무, 장애인 관련 봉사 경험 유무, 장애인 관련 교육 수혜 경험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수준이 월평균 수입이 500만원 이상으로 응답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평균이 28.9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월평균 수입이 3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상관분석에서 건강상태, 친구관계는 자아존중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하게 인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여 전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정주원(20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고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 존중감의 관계를 조사한 조미성(2014)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고등학생은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고 고정관념과 차별적인 인식이 낮은 것을 보고하였다. 즉,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나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됨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주요변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음의 상관성($r=-.205, p=.015$)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아존중감과 낙인에 대한 연구 결과(이인옥, 2007)와 일치되는 것으로 비장애인의 자아존중감도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요변수간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 한 결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장애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며 3.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장애인에 대한 낙인이 낮아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낙인의 하위 영역에 미치는 설명력을 확인한 결과 저평가, 접촉기피, 차별영역에서 차별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이 줄어들고 수용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타인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존중하는 태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특히 차별의 속성을 갖는 낙인형성의 감소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한 낙인감소의 장기적인 전략으로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고등학생 시기에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는 자아가 형성되고 내면화되어 가치관이 결정되어 가는 시기이다(정기원, 2006). 이때 형성된 가치관이 평생 동안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인간에 대

한 보편적 가치와 타인을 대하는 존중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의 자아 존중감 형성을 위한 교육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추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양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입될 필요가 있음(조미성, 2014)을 재확인 한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교육을 포함하여 사회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한 편향된 관점에서 벗어나 열린 자세로 사회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도록 안내하고 기존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당한 측면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고 올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가 교육해야 한다.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적 개입 노력은 기존의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양교육이 다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적 접근은 인간이 사회화 되어 가는 성장과정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자아존중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제도 마련이 함께 마련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질 때 다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인식이 확립되고 이는 결국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여 사회통합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 변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수립에 의한 구체적인 문제접근 방법으로 미래 주역이 될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마련과 실천노력이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아존중감, 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관계를 파악하고 장애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성별, 학년, 장애인 가족유무, 장애인 접촉경험, 장애인 관련 봉사 유무, 장애인 관련 교육유무,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 지각된 낙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대한 분석결과 성별, 학년, 장애인 가족유무, 장애인 접촉경험 유무, 장애인 관련 봉사 경험 유무, 장애인 관련 교육 수혜 경험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음의 상관성($r=-.205$, $p=.015$)이 있었다. 두 변수 간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장애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며 3.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장애인에 대한 낙인이 낮아진다는 해석이 가능한 결과이다. 즉, 비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장애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며 한 인간의 자아존중감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존중하는 태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확인한 것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관계를 확인하고 영향력을 규명하는 반복 및 확대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으로 미래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아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교와 가정, 사회의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중요함을 제언한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개입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제도적인 장치마련,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교양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권명진, 김미진, 김영희 (2013). 간호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지*,

- 8(2), 117-125.
- 김교연 (2014). 자폐성 장애인의 낙인화-자폐성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인식과 대응.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5(3), 161-189.
- 김기홍 (2006). 장애아(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 지역 소재 대학교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연구*, 13(1), 27-48.
- 김정남 (2003).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8(3), 595-617.
- 류원상 (2007).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연구*. 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천안.
- 백봉렬 (201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학교 적응 유연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서울.
- 서미경, 김정남 (2004). 지각된 낙인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지*, 56(4), 179-194.
- 성선진, 이재신 (2000).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청주대학교 학교생활연구소*, 22, 51-89.
- 신준섭, 이강훈, 김경수, 이용일 (2011). 장애인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지*, 37, 361-385.
- 양명희, 임은미 (2004). '현대사회와 장애인의 이해' 과목 수강이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5(3), 203-223.
- 윤태림 (1979). *의식 구조상으로 본 한국인*. 서울 : 현암사
- 이경희 (2001).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에 대한 낙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인옥, 이은옥 (2007). 낙인개념분석. *근관절 건강학회지*, 13(1), 53-66.
- 이인옥 (2007). *지체장애인을 위한 지각된 낙인 측정도구 개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지수 (2011). 차별경험과 자기낙인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1), 277-299.
- 전병제 (1974).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 측정. *연세 논총*, 11, 107-130.
- 정기원 (2006).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3(1), 165-190.
- 정미연, 소희영 (2008).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 비교분석. *재활간호학회지*, 11(1), 13-24.

- 정선미 (2005).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낙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 정주원 (2014).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6(1), 101-118.
- 조미성 (2014).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최말옥, 김행미 (2008).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가족의 적응력·결속력, 낙인지각과 대처방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4), 249-275.
- 홍은숙 (2000).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Douglas, M.(1978). Cultural bias (occasional paper, No. 35). London.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ion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